

# 대선배와 후배들 '연극 동행'... 아름다운 노을을 보다

### 광주연극협회, 지역 원로 연극인 참여 공연 준비

### 윤광렬 전 광주예총 회장 등 60~70대 5명

### '막차 타고 노을 보다' 29~31일 콘텐츠산업센터

지난 27일, 연극 '막차 타고 노을 보다' 연습이 한창인 광주예총회관.

지팡이를 짚 윤광렬(71) 전 광주예총 회장 등이 등장하자 코끝이 찡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의 팔짱을 꼭 끼며 '눈'이 되어준 이는 노배우 정관섭(69)씨였다. 늘 연극과 함께했던 윤 전회장은 지난 2001년 뇌출혈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장례식 준비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장면. 평상에 앉은 윤씨의 대사가 이어졌다. "삼재가 이걸 혼자 다 먹어? 여기도 한 상 차려와 주시게."

이날 현장에는 두 사람 이외에도 원로 연극인들이 눈에 띄었다. 박정기(71), 김태욱(68), 김종진(63)씨다. 이들 다섯 사람은 동네 노인들과 의사역을 맡아 극의 분위기를 띄운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 원로 연극인들과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공연'을 준비했다. 40년 넘게 연극판을 지켜온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광주 연극의 어른인 선배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다.

지난해, 실명 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늘 마음 속에 그리던 광주문화회관 공연장을 찾았던 윤씨에게 이번 공연은 특별하다.

"제가 연출은 했지만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를 출연시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혼자 집에서 대사 연습을 할 때면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참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요. 우리들끼리 후배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자, 열심히 하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30대 시절, 천송제 작 '뽕'으로 첫 연기를 시작한 박정기씨는 '리어왕', '맥베스'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는 배우다.

"연극의 매력은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함께 라면도 먹고 땀 흘리고 하는 게 너무 좋죠. 언젠가는 고등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땐 더 없이 행복하죠. 개별로 작품에 끼며 출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나이든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한 적은 처음입니다. 윤회장

이 함께 무대에 서기로 했을 때 참 감사했어요. 처음 함께 연습할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계기로 노인직을 발휘해서 주역도 해볼랍니다." (웃음)

극단 센터의 '쥬뫼'으로 데뷔한 정관섭씨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대에 서왔다. 지금까지 100여편에 출연한 그는 "연극이 꼭 아편 같다"며 "후배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말했다.

전대극회 출신인 김태욱씨는 연출과 기획을 주로 맡았던 터라 연기에 서툴러 이날 연습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김씨는 "연극 인생 40년이지만 배우 경험은 거의 없어 힘들다"며 "앞으로 혹시 연출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배우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에 공연하는 '막차타고 노을보다'는 큰데, 작은데 두 여자를 데리고 산 박삼재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전국연극제에서 금상, 연기상, 희곡상 등을 수상한 작품이다.

한달 넘게 목포에서 출퇴근하며 연출을 맡은 김장일씨 역시 내년이면 칠순인 원로 연극인이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작품을 썼어요. 죽음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인생의 말년에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광주 연극계 대선배들의 참여로 진짜 아름다운 노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의상도 준비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광주연극협회가 기획한 '막차 타고 노을 보다'에 출연하는 지역 연극계의 원로들이 27일 연습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진·윤광렬·정관섭·박정기·김태욱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생의 말년에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광주 연극계 대선배들의 참여로 진짜 아름다운 노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의상도 준비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후배 연극인들 덕분에 2015년 행복한 선물을 받은 노배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영원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아요." 공연은 오는 29일~31일 오후 7시30분

광주콘텐츠 산업지원센터(옛 사직공원 구 KBS)에서 열리며 박규상·윤희철·이현기·정일공·김경욱·양정인씨 등 후배들이 함께한다. 문의 062-523-7292.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시민이 꾸미는 제야행사 '모태, 모태 향꾸네'

〈'함께 모이자'의 사투리〉

### 31일 20시~1월 1일 01시 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광주 제야행사가 시민이 직접 꾸미는 축제 열린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신년 시민축제인 '모태, 모태 향꾸네'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모태, 모태 향꾸네'는 전라도 사투리로 '함께 모이자'라는 뜻이다.

공모로 선정한 12개 시민공연팀 공연을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 '미디어 파사드' 시연, 민주의 종각 타역 사성 안내관 제작식, 민주의 종 타종식, 시민 대합창 등이 펼쳐진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민주화 원로, 원소이피 어린이, 청년창업자,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족, 고려인, 전통시장 상인

등 시민들이 33차례 종을 친다.

역사성 안내판에는 옛 전남경찰청 정보과 대공본실이 있었던 장소 설명, 민주의 종각 조성 과정 등이 기록됐다.

지난 21일부터 시청과 5개 구청 민원실, 종각로 등에서 수집한 시민의 소원 쪽지도 전시한다. 쪽지들은 내년 시립민속박물관 대보름 달집태우기 때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소각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야행사를 위해 지난달 공연기획자, 시민·청년활동가,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등 14명으로 시민축제 TF를 구성하고,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축제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해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문화전당역을 기준으로 소태역 방면은 1월 1일 오전 1시 15분까지, 평동역 방면은 오전 1시 16분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정화 '대안 교과서' 제작 본격화

### 전국 교육청 추천 집필진 오늘 첫 회의

정부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대응할 '대안 교과서' 제작이 본격화된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대안 교과서 집필진'들이 첫 워크숍을 열고 대안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구체적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대전에서 '역사교과서 보조사료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할 대안교과서 제작 방향·서울 분야 등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각 교육청이 추천한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맞설 대안교과서인 '한국사 교과서 보조사료' 집필진들이 모이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교육청이 집필진으로 추천한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와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윤덕훈 상일여고 교사·김보름 용두중 교사 등 4명도 참여한다. 김덕진 교수

의 경우 '소쇄원 사람들'이라는 호남역사 문화연구총서를 낸 바 있다.

광주 외 전북·강원·세종교육청이 추천한 집필진들도 모두 참여 '보조사료'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교육청 인פק에서는 집필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회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대별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 10명 가량을 집필진에 포함하는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워크숍 뒤 전체 집필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석룡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은 "이날 워크숍은 각 교육청 추천 집필진들이 참여해 기존 통사·중앙 중심의 교과서 기술 방향에서 벗어난, 지역별·특정 주제별 교과서 제작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과서는 오는 2017년 9월 안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촌향도' 옛말...이제는 '이도향촌'

### 작년 농촌 순유입 3만284명...5년새 2.2배 증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를 앞지르고 있다.

27일 NH농협조사월보 1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농촌 순유출·순유입 인구는 시(市) 이상 지역에서 군(郡) 이하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인구를 뺀 값이다.

보고서에서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옮긴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순유출을 지속하다가 2007년 순유입(9617명)으로 바뀌었다. 2008년 다시 순유출 1110명으로 돌아섰다가 2009년부터는 꾸준히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42만4847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43만9318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각각 이동했다. 지난해 농촌→도시 이동 인구는

33만5593명, 도시→농촌 이동 인구는 36만7677명이었다. 5년 새 전체 인구이동은 줄었지만 농촌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2009년 1만4461명에서 2014년 3만284명으로 5년간 약 2.2배로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은퇴를 시작으로 귀농·귀촌이 가시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대도시로 부터 농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도시화가 한계에 이르러 인구 유입력이 약해지고, 교통망 확충과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등으로 외곽 지역으로 인구 분산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는 11만9020명이었다.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각각 11만7488명, 13만1169명이 농촌으로 이동했다.

연령별로 40~50대는 2001년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순유입으로 전환했고, 30대와 60대는 각각 2006년과 2005년부터 순유입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24시간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rin NAVER 백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